

쇼와 모던과 문화의 번역 에로 그로 년센스 영역

나미가타, 츠요시
큐슈대학대학원비교사회문화연구원준교수

장, 윤향
큐슈대학대학원박사과정

<https://doi.org/10.15017/16395>

出版情報 : 九大日文. 13, pp.1-18, 2009-03-31. 九州大学日本語文学会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1. 본고의 목적

문학 연구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어느 정도 정착된 개념이다. 이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서양의 혁신적인 문학·예술 운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본 근·현대문학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을 고찰하고자 할 경우, 당연히 일본 모더니즘이 서구의 모더니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하는 점에 주목됨으로서 기원/과생이라는 도식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서 근래에 와서 일본 독자적인 변용에 중점을 두어 타이쇼(大正)부터 쇼와(昭和)초기 작품에 새로이 주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 졌다. 海野弘(운노 히로시)·川本三郎(가와모토 사부로)·鈴木貞美(스즈키 사다미) 공저 『モダン都市文学 (모던도시문학) I~X』(平凡社, 1989~91年)을 비롯해 유마니(ゆまに)書房에서 복간된 『現代の芸術と批評叢書 (현대의 예술과 비평총서)』(1994~95年), 『文学時代(문학시대)』(1995~96年), 『新鋭文学叢書(신설문학총서)』(1998~99年), 『新興芸術派叢書(신흥예술과총서)』(2000年)가 그 예이다.

최근에는 더욱 영역이 넓어져和田博文(와다 히로후미)감수 『コレクション・モダン都市文化(컬렉션 모던 도시 문화)』시리즈(ゆまに書房, 2004年~)에 의한 자료의 발굴·소개를 시작으로 쇼와초기의 여러 텍스트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모더니즘」이라는 틀이 문학·예술에 그치지 않고 문화 현상 전반에 미치는 성격상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자료의 복간과 마찬가지로 연구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활기를 띠게 된다. 예를 들면 岩本憲児(이와모토 켄지) 편저 『日本映画とモダニズム (일본영화와 모더니즘) 1920-1930』(リブレポート(리브로포드)1991年), 鈴木貞美(스즈키 사다미) 『モダン都市の表現——自己・幻想・女性 (모던 도시의 표현- 자기·환상·여성)』(白地社, 1992年), 和田博文(와다 히로후미) 『テキストの交通学——映像のモダン都市 (텍스트의 교통학—영상의 모던 도시)』(白地社, 1992年), 初田亨(하츠다 토루) 『カフェーと喫茶店 モダン都市のたまり場 (카페와 다방 모던 도시의 집합 장소)』(INAX出版, 1993年), 秋田昌美(아키타 마사미) 『性の獵奇 モダン 日本変態研究往来』(정의엽기모던 일본변태연구왕래)』(青弓社, 1994年), 澤正宏(사와 마사히로) 공동 편저 『都市モダニズムの奔流 「詩と詩論」のレスプリヌーボー (도시모더니즘의 분류 [시와 시론]의 레스프리누드)』(翰林書房, 1996年), 馬場伸彦(바바 노부히코) 『周縁のモダニズム モダン都市名古屋のコレクション (주변의모더니즘 모던 도시 나고야의 콜라주)』(人間社, 1997年), 図録(도록) 『モボ・モガ展 1910 - 1935 (모보·모가전)』(神奈川県立近代美術館, 1998年), 渡辺裕(와타나베히로시) 『日本文化・モダン・ラプソディ (일본문화·모던·랩소디)』(春秋社, 2002年), 川畑直道(가와바타 나옴치) 『紙上のモダニズム 一九二〇-三〇年代 日本の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종이 위의 모더니즘1920-1930년대 일본의 그래픽 디자인)』

(六曜社, 2003年), 橋爪紳也 (하시즈메 신야) 『モダニズムのニッポン(모더니즘 일본)』 (角川選書, 2006年), 竹内民郎 (다케우치민로) 공동편저 『関西モダニズム再考(관서모더니즘재고)』 (思文閣出版, 2007年), ミツヨ・ワダ・マルシアーノ (미즈요 와다 마르시아노) 『ニッポン・モダン 日本映画一九二〇・一九三〇年代(일본 모던 일본 영화 1920・1930)』 (名古屋大学出版会, 2009年) 등 각 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재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에서의 「모더니즘」에 대한 재평가는 미술사, 영화사, 사회학, 미디어론, 역사학 등의 성과에 보조를 맞춰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속에 「모더니즘」이라는 개념 그 자체, 혹은 「모더니즘」의 생성에 동반하여 발생, 유통된 개념에 관한 재고찰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서양과 같이 「모더니즘」의 시기와 내용은 여러 설이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던」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쇼와 초기이다. 또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에로・그로・넌센스」라는 개념은 일본의 「모더니즘」에 관해 고찰할 때 절호의 시자를 제공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밀리엄·실버버그의 논문 「エロ・グロ・ナンセンスの時代——日本のモダン・タイムズ——(에로・그로・넌센스의 시대 - 일본의 모던・타임즈--)」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七 総力戦下の知と制度 (이와나미 강좌 근대 일본의 문화사 7 총력전하의 지식과 제도)』) (岩波書店, 2002年) 는 「에로」, 「그로」, 「넌센스」의 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에로」는 「성적으로 혼란한 논의와 여성의 (가끔은 남성의)실루엣」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능적인 만족과 신체적인 표현성, 사회적인 친밀감의 긍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로」는 「기형 혹은 추잡한 범죄성과 연관지어졌지만」, 「사회적 불평등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경기로 제한되는 소비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실천에 연결」된다. 또 「넌센스」는 「슬랩·스틱·코메디의 매력에 대한 성찰」일 뿐만 아니라, 「서양의 풍습에 지배받는 근대성에 의한 변용이라는 테마를 다루는 정치적인 아이러닉·유머」라고 한다 (PP 67~68) .

집필자도 이러한 경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서 『エロティック・グロテスク・ナンセンス (에로틱・그로테스크・넌센스)』 (Miriam Silverberg. *Erotic, Grotesque, Nonsense: The Mass Culture of Japanese Modern Times*.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에서 전개된 고찰에 많은 시사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 논문의 중심적인 화제가 되는 「아사쿠사」에서 범위를 넓혀 검토해 보려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전개 『コレクション・モダン 都市文化(컬렉션・모던 도시)』 에 『エロ・グロ・ナンセンス(에로・그로・넌센스)』 (第15巻, 2005年) 가 실리고 또한 그것이 고찰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재를 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エロ・グロ・ナンセンス 近代的刺激の誕生(에로・그로・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ソ・レソプ (소레섭) 著, 살림出版社, 2005年, 서울) 이라는 저서가 간행되어, 한국에서 「에로・그로・넌센스」의 수용이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존재는 이미 알려진 상해 모던과의 관계를 시야에 둘 때, 동아시아의 「모더니즘」의 교섭이 문제시 됨을 나타낸다. 즉

역사적 문맥에 주목해 볼 경우, 「에로·그로·넌센스」의 생성 과정에서 문화의 정치학이 서양문화의 번역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의 번역과 어떠한 접점을 가지는가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른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저서와 모더니즘연구회 『モダニズムの越境(모더니즘의 월경) I~III』(人文書院 2002年),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六 拡大するモダニティ(이와나미 강좌 근대 일본의 문화사 6 확대하는 모더니티)』(岩波書店, 2002年), 五十殿利治(오무카 토시하루)·水沢勉(미즈사와 츠토무) 편저 『モダニズム/ナショナリズム 一九三〇年代日本の芸術(모더니즘/ 내셔널리즘 1930년대 일본의 예술)』(せりか書房, 2003年), 과학 연구비 보조금 연구성과 연구서 『東アジアにおける植民地的近代とモダンガール(동아시아의 식민지적 근대와 모던걸)』(研究代表者 舘かおる(다치 카오루), 2007年) 등에 도입되어 있는 포스트 콜로니얼 이론의 시점이 「에로·그로·넌센스」에 있어서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전제로서 추정되어 있는 것은 레이쥬 저 『プリミティブへの情熱 中国・女性・映画(프리미티브에의 정열 중국·여성·영화)』(本橋哲也·吉原ゆかり(모토하시 테츠야, 요시하라 유카리)역, 靑土社, 1999年)에 있어서 문학자 노신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중국 「근대」의 시작을 영화라는 시각 미디어의 충격과 문화의 위기에서 발생하는 「원초에의 정열」에 의해 기술하는 제1부의 논의와 「모더니즘」과 「프리미티비즘」의 공범 관계에서 논의가 발생하여 포스트 콜로니얼 세계의 「문화번역」의 가능성을 찾는 제3부의 논고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문화번역」은 어느 특정적인 언어 또는 표상의 형태로는 통합 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가지 기호 시스템을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 그룹간의 공시적인 교류와 투쟁」(p292)이라는 정의가 「쇼와 모던」의 생성을 논하는 데에도 크게 참고 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본고에서는 (1) 쇼와 모던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인 「에로·그로·넌센스」가 어떻게 발생하고, 정착되어 갔는가를, 그리고 (2) 「에로·그로·넌센스」라는 개념이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더니즘」의 동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어떠한 문화번역이 이루어져 갔는가를 두 가지 점에 관하여 가설적인 견해를 논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사전상의 「에로」·「그로」·「넌센스」

「에로·그로·넌센스」가 유행한 것은 1929년부터 1931년즈음으로 보여 진다. 그 유행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別冊太陽(별책 태양) 『乱歩の時代 昭和エロ・グロ・ナンセンス(반란의 시대 쇼와 에로·그로·넌센스)』(平凡社, 1995年)에 있는 각 논고와 앞에서 소개한 『コレクション・モダン都市文化 一五 エロ・グロ・ナンセンス(컬렉션·모던 도시 문화 15 에로·그로·넌센스)』에 수록되어 있던 『現代猟奇尖端図鑑(현대엽기첨단도감)』(新潮社, 1931年), 『変態風俗図鑑(변태풍속도감)』(時代世相研究会, 1931年)과 잡지 『犯罪科学(범죄과학)』, 『中央公論(중앙공론)』에 실려 있는 기사 내용 그리고 책자 끝부분에 있는 관련

연표에 기재된 동시대 사상과 주요 자료군이 그 단서가 된다. 본고에서는 그것에 제시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어휘 레벨로 돌아가서 세 요소가 이어지는 단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1910대부터 1930년대의 신어사전(새말사전)을 모았는데, 松井榮一(마츠이 시게카즈) · 曾根博義(소네 히로요시) · 大屋幸世(오야 유키요) 감수 『近代用語の辞典集成 (근대 용어의 사전집성)』 (全41巻・別巻1, 大空社, 1994~1996年) 을 참조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에로틱」과 「그로테스크」에 관한 언급은 이른 단계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옛 표기법에 의한 한자는 적당한 현대 상용한자로 정정했고 각각의 용어 앞에 ○표시를 하고 있음.)

● 『新文学辞典(신문학사전)』 生田長江(이쿠다 쇼코), 森田草平(모리타 쇼헤이), 加藤朝鳥(가토 아사도리) 편, 新潮社, 1918年3月

○에로틱 [Erotic] 연애적. 또는 연애문학 등으로 해석함. (p31)

○그로테스크 [Grotesque] (英) 그로테스크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하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력을 정당하게 향해가지 않고 힘이 있으면서도 휘어지고 비뚤어진 방향으로 틀어져 기괴하고도 꺼림직한 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p67)

● 『現代日用新語辞典 (현대일용 신어사전)』 小林鶯里 (고바야시 오우리) 편, 文芸通信社, 1920年2月

○에로틱 [Erotic 英] 연애적, 연애에 관한 또는 연애 문학으로 해석함 (p39)

○그로테스크 [Grotesque 英] 미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고 해석함. (p93)

두 가지 예와 같이 「에로틱」은 「연애」 또는 「연애문학」을 가리키고, 「그로테스크」는 「기괴」함과 기이한 것을 가리킨다는 정의는 그 이후에도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쇼와시대로 들어가서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에로틱」에 「색정」「야합」이라는 의미가 부가되어 있다.

● 『文芸大辞典 (문예대사전)』 菊池寛 (기쿠치 칸) 校閲, 斎藤竜太郎 (사이토 류타로) 편저, 文芸春秋社, 1928年6月

○에로틱 (英 Erotic) 연정적.색정적.야합의 뜻. 듀오데의 「사후오」와 괴테의 「若きエルテルの悲しみ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近松秋江(치카마츠 슈고)의 「黒髪(검은 머리)」 등은 에로틱한 작품이다. 에로틱은 또 연애시, 연가 등을 말할 때도 있다. (p88)

○그로테스크 (英, 仏 Grotesque 独 Grotesk) 원래는 로마시대의 동굴 안에 있는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변하여 부자연스러움, 불합리, 황당, 경이 등의 형태를 말하게 되었다. (p183)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 들어가 보다 명확히 되고, 「에로」 「그로」 라고 약어화 되기 시작했고 양자의 의미가 서로 접근하게 된다. 또 「넌센스」의 항목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1930년의 일이다. 특징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 『モダン語辞典(모던어 사전)』 모던語辞典編輯所編, 弘津堂書房, 1930年10月

○에로틱 (性) 성욕적, 생략해서 「에로」 라 한다. (p38)

○그로테스크 변태적, 변죽적, 때로는 성욕적인 뜻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자면, 「그의 소설은 실로 그로테스크다」 등으로 쓰임. 생략해서 「그로」 라 한다 (p78)

○넌센스 일정한 의미가 없는 것, 내용의 공조로 가벼운 것. 「그의 소설은 넌센스다」 등과 같이 말한다. 넌센스는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경향으로 여겨진다. (p196)

● 『モダン用語辞典 (모던 용어 사전)』 喜多壯一郎(기타 소이치로)감수, 麴町幸二(코지마치 코지) 편, 実業之日本社, 1930年11月

○ 에로 에로틱의 약자. (その項参照) 「저 영화는 에로 그 자체이다」 라고 사용된다.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에로는 색정이다. 「에로틱한 눈빛」 이란 「야한 눈빛」 이라고 한다. (p72)

○에로틱 Erotic 英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있는 연애의 신 에로스와 같은 의미로, 연애적이라든가 색마적이라든가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육감적이든가 방탕함등의 의미. 문명과 에로틱과는 평행선에 있다고 일컬어지며 현대는 에로틱한 시대 등으로 일컬어 진다. 「저 여자는 무척 에로틱하다」 「현대는 스포츠와 영화와 에로틱한 시대이다」 등으로 사용되지만, 생략하기 좋아하는 일본인은 약칭으로 에로라고 많이 쓴다. (p73)

○그로 그로테스크의 약칭. 이 그로와 에로는 1930년□(원문에서 공백칸이 있었음) 경향의 하나로, 문명의 형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저 여자는 무척 그로다」 등으로 쓰인다. 「그로테스크」의 항목을 참조 (p142)

○그로테스크 Grottesque 英 원래 광망한 인물과 공상적인 동물을 삼입시켜 이상한 제재를 다루거나 혹은 아라비아풍의 모양을 나타내는 곳의 회화묘사 또는 조각 장식 방법을 말한다. 중세기의 조각은 비정상적인 수완으로 이 그로테스크적인 제재를 다루고 있다. 이 장식법 취미는 문예복흥기 중에 행해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흐아에로의 그로테스크적인 작품에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17 세기의 데니엘이나 카로가 환타스틱한 정경을 잘 그렸는데, 그 중에서

그로테스크적인 풍격이 주된 요소가 되고 있다. 보통 기괴하다는 의미로, 생략해서 일반적으로 그로라고 말한다. 그로와 예로는 1930 년의 총아이다. (pp 143~144)

○년센스 Nonsense 英 무의미하고 참으로 바보스러운 것. 도리나 이론은 제쳐 놓고 바보스럽고 이상한 것—만어나 만담, 쿵트의 종류가 년센스의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대인이 절실히 요구하는 밝은 웃음은 유머에서도 페소스에서도 위트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상하다고 하는 이상하지도 않는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p352)

위와 같이 동시대의 신어사전에서 확인 해 본 결과, 「에로틱」 「그로테스크」의 용례가 먼저 존재했고 1930 년이 되면서 약어화 된 「에로」 「그로」에는 보다 성적인 의미가 더해져 갔다. 그와 함께 「에로틱」에 있어서는 「연애문학」이란 개념이, 「그로테스크」에 관해서는 「장식 양식」이라는 의미가 희박해져 갔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변화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보류할 필요성이 있다. 1930 년의 예로 든 것은 문예 용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풍속 문화 전반에 걸쳐 다른 「모던」어의 사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에로」나 「에로틱」, 「그로」 「그로테스크」의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고 「에로」 「그로」 그리고 「년센스」가 1930 년이 되어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의 「경향」을 「모던」이라는 용어가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鈴木貞美 (스즈키사다미)는 「모던」이란 용어가 유행하기 이전, 메이지 시대 중기에는 「하이컬러」, 그리고 러일전쟁후에는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유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モダニズムと伝統、もしくは『近代の超克』とは何か (모더니즘과 전통 혹은 『근대의 초극』이란 무엇인가)」, 전개『関西モダニズム再考(관서 모더니즘 재고)』所収, p386) 그리고 1926 년 유행했던 「모던걸」의 「모던」은 「당시의 유럽과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p395)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에로·그로·년센스」를 대표하는 「모던」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한가 더욱 자세히 검토 해 보고자 한다.

3 「문학」과 「생활」의 「모던」

신어사전에서 확인한 「경향」은신문과 잡지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朝日新聞(아사히신문)』의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1929 년 11 월 27 일의 「에로의 난무」를 시작으로 1930 년에는 「帝都のエロ一掃(제도의 에로 일소)」(9 월 30 일), 「エロと先鋭の意見が対立(에로와 첨예한 의견이 대립)」(10 월 3 일)이라는 표제가 등장하고, 「エログロ野球戦(에로그로 야구전)」(11 월 12 일), 「これがエロとグロの基本図か(이것이 에로와 그로의 기본도인가)」(12 월 13 일) 등이 이어진다. 그리고 「년센스」에 관해서는 1929 년 2 월 17 일의 「봄의 유행=년센스스토리」로 시작되어 1930 년 6 월이후에는, 계속해서 표제로 등장한다. 또, 『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30 년이 되자 곧 「血みどろのエロとグロに殺生関白を彩る

(피투성이의 에로와 그로로 살생 관백을 물들인다)」 (2월 5일)란 기사가 실렸고, 「넌센스」는 연재물 「選挙ナンセンス(선거넌센스)」 (2월 1일~2월 16일)라는 기사에 등장한다. 그 외에도 「에로와 넌센스」 (7월 24일)라는 표제도 있고, 게다가 1930년 10월 15일에는 「에로·그로·넌센스」가 한 용어로서 표제로 등장한다.

「에로」와 「그로」가 근접해 가는 경위에 대해서는 秋田昌美 (아키타마사미) 『性の猟奇モダン (성의 엽기 모던)』 (전개)에서 中村古峯(나카무라 고쿄), 梅原北明(우메하라 호쿠메이), 斉藤昌三(사이토 쇼조), 酒井潔(사카이 키요시) 등의 계보를 찾아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것에는 「변태」라는 용어를 매개체로 정신이상이나 성적도착에의 관심이 높아져 『変態・資料(변태·자료)』 (1926~28년), 『グロテスク (그로테스크)』 (1928~31년), 『犯罪科学 (범죄과학)』 (1930~32년) 등의 잡지와 『変態十二史 (변태십이사)』 시리즈 (1926~28년), 『近代犯罪科学全集 (근대범죄과학전집)』, 『性科学全集 (성과학전집)』 (武俠社, 1930・1931년) 등의 간행이 이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로테스크」에 「변태적」인 의미가 더해진 것 (『모던어사전』)도 그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변태심리」가 「변태성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엽기범죄로 대상을 옮겨 가며, 「에로」와 「그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갔다.

그러면 「넌센스」에 있어서는 어떨까? 앞에서 확인한 『モダン用語辞典 (모던용어사전)』에서는 「만언이나 만담, 콩트 등의 종류」를 예로 들고 있었고, 『読売新聞 (요미우리신문)』에서도 「選挙ナンセンス (선거넌센스)」 연재부터 「넌센스」라는 용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정한 영역에서의 「넌센스」 발생을 조사하는 것은 선행 연구도 전혀 없기에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사를 볼 수 있는 주간지에 주목해 보면, 『週間朝日(주간아사히)』의 총목록 (山川恭子(야마가와 쿄코) 편집, ゆまに書房, 2006년)에서는 服部泰三 (핫토리 타이조) 「ナンセンス行進曲 (넌센스 행진곡)」 (1928년 6월), 小出樽重 (고이데 준쥬) 「毛皮の褌 (ナンセンス物語) (모피의 곤 (넌센스의 스토리))」 (1928년 11월), 柳家小さん (야나기야코상) 「ナンセンス都々考(넌센스 도도일고)」 (1928년 12월), 小野田素夢 (오노다 소무) 「銀座・ナンセンス・春(긴자・넌센스・봄)」 (1929년 4월) 등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サンデー毎日(썬데이 마이니치)』의 총목록 (山川恭子(야마가와 쿄코) 편집, ゆまに書房, 2007년)에서는 『週間朝日(주간아사히)』보다도 일년후의 1929년에 「넌센스」를 표제로 한 것이 등장하지만, 그것보다 특징적인 것은 「ナンセンス号(넌센스호)」 (1929년 9월 8일), 「ナンセンス(넌센스)」 (1930년 5월 1일), 「誌上ナンセンス大会 (지상 넌센스 대회)」 (6월 10일), 「モダン・ナンセンス集(모던·넌센스집)」 (6월 22일), 「夏のナンセンス(여름의 넌센스)」 (8월 10일), 「ナンセンス実話・懸賞入 (넌센스 실화·현상입상)」 (9월 7일), 「ナンセンス実話(넌센스실화)」 (9월 14일)라는 특집을 내고 있었다. 각각의 특집에서는 소설, 만화, 만담, 우스개 이야기, 신작 라쿠고, 실화 등 다양한 「넌센스」가 게재되었다.

그 속에서 문학에 있어서는 小林真二(고바야시진지) 「《ナンセンス文学》の様相——中村正常を中心に——(넌센스문학의 양상——나카무라 마사히코를 중심으로——)」 (筑波大学 文芸・言語学系 『文芸言語研究』 文芸篇 34号, 1998년)가

「合作なんせんす物語 (합작 년센스 스토리)」 유마기치·페소코의 시리즈로, 中村正常(나카무라 마사히코)가 井伏鱒二(이부세 마스지)와 함께 『婦人サロン(부인 살롱)』(1929년 10월~1930년 3월)에 연재된 시기를 「ナンセンス文学(년센스문학)」의 맹아라고 지적하고 있다.

「년센스문학」에 주목해 쇼와 초기에 창간되었던 문예지를 확인해 보면, 『文学時代(문학시대)』(1929~32년)가 「ナンセンス・ルーム(년센스룸)」이라는 기사를 1929년 8월부터 1931년 2월에 걸쳐서 게재하고 있다. 그 외에 大宅壯一(오야 소이치) 「意味のあるナンセンス (의미있는 년센스)」(1929년 9월), 中村正常(나카무라 마사히코) 「ナンセンスの抗弁(년센스의 항변)」(1930년 5월)도 게재되어 있다.

『文学時代(문학시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近代生活 (근대생활)』(1929~32년)의 경우에는 「에로」와 「년센스」가 관련된 특집 「에로틱·년센스」(1929년 10월)부터 「년센스」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丸木砂土(마루키 사토) 「秋の兵隊 (가을 병사)」, 岩田豊雄(이와다 토요오) 「裸島(나도)」, 三沢伸子(미사와 노부코) 「エロ・ナン書簡集 (에로·년 서간집)」이 게재된 특집 이후, 「事实ナンセンス(사실 년센스)」(1929년 12월)에서는 堀口大学(호리구치 다이가쿠), 사토 하치로, 中村正常(나카무라 마사히코), 浅原六朗(아사하라 로쿠로), 「夏のナンセンス 여름의 년센스」(1930년 8월)에서는 龍胆寺雄(류탄지 유), 阿部ツヤコ(아베 츠야코), 飯島正(이지마 쇼), 「都会ナンセンス(도시 년센스)」(1930년 12월)에서는 下村千秋(시모무라 치아키), 林芙美子(하야시 후미코), 堀口大学(호리구치 다이가쿠), 奥村五十嵐(오쿠무라 이가라시), 山田一夫(야마다 카즈오), 川端康成(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龍胆寺雄(류탄지 유) 「ナンセンス文学論(년센스문학론)」(1930년 2월), 阿部知二(아베 토모지) 「ナンセンスとは? (년센스는?)」(1931년 4월)도 게재되어 있는 점으로 봐서, 『近代生活(근대생활)』은 「년센스문학」의 유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문학지에서는 『中央公論 (중앙공론)』이 특집 「가난한 년센스 스토리」(1930년 9월)을 내고, 『改造(개조)』에서는 赤神良讓(아카가미 요시즈구) 「ナンセンスの社会学(년센스의 사회학)」(1930년 9월)이 게재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또 『新潮』가 「ナンセンスとエロチシズムに対する社会的考察(년센스와 에로티시즘에 대한 사회적 고찰)」(1930년 10월)의 특집을 편성했다.

이러한 기사를 확인하면, 「에로」를 매개체로 「그로」와 「년센스」가 접속되어 「에로·그로·년센스」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에로」의 요소가 다른 두 가지를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넓은 영역이었는지 모른다. 또, 「에로」 「그로」 「년센스」가 각각 이들과 다른 요소와 이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文学風景 (문학풍경)』이란 잡지가 1930년 12월호에서 편집된 특집 「一九三〇年の風景よさようなら (1930년의 풍경이여, 안녕)」을 장식한 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다. (「에로티시즘」의 집필자는 吉行エイスケ(요시유키 에이스케), 「그로테스크」의 집필자는 赤神良讓(아카가미 요시즈구), 「년센스」 집필자는 中村正常(나카무라 마사히코).)

「논즈로스」 「관광국」 「긴자」 「럭비」 「브로무리중위」 「여객선」 「음악」 「년
센스」 「경마」 「아메리카」 「모던걸」 「무용」 「과학소설」 「슈르 · 리얼리즘」
「공동제작」 「부인문제」 「프롤레타리아 문예」 「카지노·포리」 「신흥 예술파」
「에로티시즘」 「카페」 「토키」 「문예평론」 「러시아」 「야구입장권문제」 「유행」
「그로테스크」 「형식주의」 「마잔」 「여학생과 사인」 「소비에트영화」

이들 항목을 열거한 「1930 년의 풍경」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또는 고급문화 / 저급문화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그로·년센스」의 주변이 혼연일체가 된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방면으로의 연결망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新潮 (신조)』에서 있었던 1930 년 2 월 좌담회 「모더니즘 문학 및 생활비판」에서는 에로티시즘과 년센스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은 「문단이외에 많이 있다」고 川端康成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발언한 것이 나온다 (p136)

그리고 그로테스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아사쿠사의 모던은 그로테스크」라고 했던 부분은 한 군데 뿐이었다. 이는 「긴자」가 「하이컬러」라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아사쿠사」에 대해서는 「대중의 모더니즘」이라고도 지적 하고 있었다. (p144) 좌담회의 테마가 「모더니즘」의 「문학」과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고급문화 / 저급문화로 구분하려는 의지가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千葉宣一(치바 센이치)『モダニズムの比較文学的研究 (모더니즘의 비교문학연구)』(おうふう, 1998 年)에서는 같은 좌담회를 시작으로 문학계에서도 「모더니즘」이란 용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가 1930 년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p27, p72)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다루어 지게 된 것도 「1930 년의 풍경」속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시점을 바꾸면, 고급스러운 「모더니즘문학」과 저급한 「에로·그로·년센스」으로 구분할 수 밖에 없다는 조급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년센스」의 성행에 한 몫을 한 「모더니즘문학」잡지가 『近代生活 (근대생활)』이라는 것이 타이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대립하면서도 단순하게는 양자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쇼와의 「모던」이 형성되어 간 것이다.

4 「생활철학」으로서의 「감각적 자극」

제 3 절의 끝부분에서 「에로·그로·년센스」의 연계도가 되는 한 예를 제시했는데, 그것들의 집대성은 역시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이 200 페이지를 넘는 대형 비주얼책인이다. 『コレクション・モダン都市文化一五 エロ・グロ・ナンセンス (컬렉션·모던도시문화 15 에로·그로·년센스)』(전계, 島村輝 (시마무라 테루))의 해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新潮社(신조사)와 같은 출판사로 부터도 이와 같은 기획본이 출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동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637)

다만, 「에로·그로·년센스」가 선두에서 질서정연하게 나열되는 속에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점도 생기났다. 먼저 『コレクション・モダン都市文化 一五 エロ・グロ・ナンセンス (컬렉션·모던도시문화 15 에로·그로·년센스)』의 해설 (島村輝 (시마무라 테루))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로테스크」를 둘러싼 변용 문제이다. 잡지 『グロテスク (그로테스크)』 등에서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었던 것은 「거듭 발매금지 처분을 받으면서」도 「유명 출판사가 결국 기획할 수 없었던 『뒷무대』의 세계에의 통로를 열어」 가는 것이었다. (p634) 그런데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에서는 도상도, 新居格 (나이 타루)의 「그로테스크서설」도, 「표층문화 속에서 익숙해 진」 부분밖에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p635)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도감에서 확인 되지 않는 것은 해설과 실버버그 등이 지적한 「그로테스크」와 프로레탈리아와의 연계이다. 이는 전철의 「1930 년의 풍경」에도 나왔듯이 『モダン用語辞典 (모던용어사전)』 (전계) 의 「특히 현대는 3S 시대라 불리며, 또한 3 로시대라 불린다. 3S 는 스피드와스포츠, 스크린이고, 3 로는 에로·그로·프로를 가리키고 있다. 」는 서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로·그로·프로」라는 연결 관계는 그 선단에 「테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秋田昌美 (아키타 마사미) 『性の獵奇モダン (성의 엽기 모던)』 (전계) 에서 잡지 『人の噂 (사람들의 소문)』 (1932 年 5 月) 에서 「에로·그로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저명인에게 한 결과, 「테러」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p130) 분명히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의 권말에 수록된 赤神良讓 (아카가미 요시즈구) 「尖端の心理学 (첨단의 심리학)」에서는 「강렬한 자극이 많은 사회는 한층더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고, 드디어는 엽기적·변태적이 되고, 그로로 되며, 그것이 테러가 되어, 범죄적·악마적이 되고,현대사회를 극도로 울트라화 시켜 가고 있다. 」(부록 p45)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부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간신히 그 일각을 엿볼 수 있었지만,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 전체적으로 「에로·그로·프로」의 요소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로테스크」만이 변용한 것은 아니다. 小林真二 (고바야시 신지) 「《ナンセンス文学》の様相 (년센스문학의 양상)」 (전계) 에서 「년센스문학」에서 볼 수 있는 「이데올로기문학의 안티 테제」, 「가치전도」의 측면(p41), 또는 「서정성」이 지적되고 있고(p32), 이러한 점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또 실버버그의 논문에서도 「년센스」와 사회비판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pp96~97) 이러한 지적은 「에로」에 있어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菅野聡美 (간노 사토미) 『〈変態〉の時代 (변태의 시대)』 (講談社, 2005 年) 는 梅原北明 (우메하라 호쿠메이)가 주최한 잡지인 『グロテスク (그로테스크)』가 「에로보다도 그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발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p157) 요컨대, 이것과 비교해 볼 경우, 『現代獵奇尖端図鑑(현대엽기첨단도감)』는 당당하게 처음부터 「에로」의 그림을 첫부분에 장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한다면, 「에로」 「그로」 「년센스」의 개념이 생겨나는 문맥에 있어서 각기 가지고 있던 대항 의식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에서 새로이 더해진 요소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비주얼을 중시하는 지면으로 전면화한 것은 기발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역시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에 이어 「리뷰」 「스포츠」 「포즈」의 각각에 「기관」 「첨단」 「진기」의 항목이 이어져 시각적인 구성은 매우 특징적이다. 「리뷰」나 「스포츠」가 「기관」 「진기」라는 항목과 나란히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大宅壯一 (오야 소이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근대사회색」 (『毎日年鑑』1932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에로·그로·넌센스가 시네마와 카페 그리고 예술과 문학과 사이의 울퉁불퉁한 일부 첨단인의 취미로부터 떨어져 살인적인 불경기와 실업 및 실업의 불안에 따른 생활의 경제적 기반과 함께 종래의 생활지도 정신을 잃어 가는 일반 대중, 특히 저항력이 가장 약한 중간 계층의 생활 철학이 되어 왔다.

전술은 희망을 잃고 생활에 긴장감을 잃은 대중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강렬한 감각적 자극이다. 그런데, 감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고도가 아닌 강도이다. 한편으로는 야만미—소리로는 재즈, 색으로는 원색—가 부활하고, 다른 방면에서는 연극보다도 시네마, 시네마보다도 리뷰, 리뷰보다도 여극 혹은 사창이란 식으로, 에로티시즘의 함유량이 보다 큰 요소로 확대되어 간다. (pp205~206)

「일부 첨단인의 취미」가 「일반대중」에게 받아 들여져, 「중간계층의 생활철학」으로 변모되어 갈 때, 각각 다른 요소였던 「에로·그로·넌센스」는 하나가 되어, 「강렬한 감각적 자극」으로 받아 들여 졌던 것이다. 그 자극이 여러가지 대항 의식에서 생겨난 사상성 등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적 불경기와 실업 및 실업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강도」가 중요시 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에서는 「강렬한 감각적 자극」이 인종/민족의 사상성을 띠고 구현하고 있는 점이다. 레이초가 말하는 「문화번역」의 문제가 이러한 논의와 연결 된다. 「그로테스크」의 항목에 게재된 그림은 흑인, 남양의 이미지가 짙게 배어 있다. 또 흑인 댄서의 조셉핀·베이카가 「에로」 「리뷰」의 쌍방에 등장하고, 서양의 이그조티즘을 수용한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야만」적인 미를 문화의 재생과 연결시키려는 「바바리즘」이 일본에서도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록에 게재된 中野江漢(나카노 코칸) 「支那の怪奇風俗(중국의 괴기 풍속)」에 있어서 「중국은 에로 그로의 나라이다. 중국의 풍속은 5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며 에로와 그로의 굴레로 짜여진 천과 같은 것이다.」(부록 p38)라는 기술과 어떤 관계로 놓여 지는가하는 것이 다시금 문제화 될 것이다.

또한 인용한 문장이 「넌센스의 생활화」라는 표제로 되어 있었던 점을 부연 설명해 본다면, 『現代獵奇尖端図鑑 (현대엽기첨단도감)』의 「넌센스」에서 다양한 미국 사람들의 「넌센스」적인 모습을 예로 든 것은 세계 공황의 발신지인 미국

경제·정치·문화의 「넌센스」의 양태를 암시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에로티시즘」에 있어서는 나체의 그림이 많이 게재되어 「에로티시즘의 함유량」이 많아지는 것뿐 아니라 「일본인」의 모습도 많아졌다. 보다 익숙해진 나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리뷰」 「스포츠」 「포즈」라는 큰 항목과도 관련되고, 「신체」를 하나의 기호로서 어떻게 다루는가가 「쇼와모던」의 큰 테마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양의 「모던」적인 문화를 일본에서는 「에로·그로·넌센스」로서 번역한 것은 원래부터 서양의 「모던」에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양한 그룹이 개입하면서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모방해서 오리지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혼돈스럽게 보이는 「감각적 자극」의 은퍼레이드가 인종/민족의 사상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며, 하나의 타블로로서 「대중」에게 제시되고, 「생활철학」으로서 받아들여진 문화의 논리가 전쟁 시대로, 또 총동원체제의 시대로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그림이 제시해 주는 분명한 이그조티시즘은 「일부 첨단인의 취미」를 확대해 드러낸 것일까? 『現代獵奇尖端図鑑(현대엽기첨단도감)』은 미디어간의 번역과 함께 계급간에서의 번역이 이런 역할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이어져 「에로·그로·넌센스」의 고찰은 활자미디어와 영상미디어, 지식인과 대중, 미학과 정치학과의 관계를 재고찰하는 작업으로 연계되어 지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5 쇼와 모던과 상해 모던

앞에서 『現代獵奇尖端図鑑(현대엽기첨단도감)』의 예를 들고 일중 간의 이그조티시즘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러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일본인 모더니스트와 대륙의 모던도시 상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和田博文(와다 히로후미) 공동편저 『言語都市・上海—一八四〇—一九四五(언어도시·상해—1840—1945)』(藤原書店, 1999年), 劉建輝(류 건휘) 『魔都上海—日本知識人の「近代」体験(마도 상해—일본지식인의 「근대」 체험)』(講談社選書メチエ, 2000年), 趙夢雲(조 몽운) 『上海・文学残像—日本人作家の光と影(상해·문학잔상—일본인 작가의 빛과 그림자)』(田畑書店, 2000年) 등에서도 이미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해와의 인적교류를 전체적으로 정리·연구하고 있는 일본 상해사 연구회에서는 『上海人物誌(상해인물사)』(東方書店, 1997年), 『上海職業さまざま(상해 직업 여러가지)』(勉誠出版, 2002年) 등의 저서를 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저서를 통해 다양한 교류의 궤적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도 「상해 모던」관계의 연구서가 간행되고 전람회도 개최되고 있다. (Leo Ou-Fan Lee, *Shanghai Modern: The Flowering of a New Urban Culture in China, 1930-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Jo-Anne Birnie Danzker, Ken Lum, and Zheng Shengtian, eds. *Shanghai Modern 1919-1945*. Munchen: Museum Villa Stuck, 2004.) 그리고 본국(중국:역자)에서도 전자의 중국어판(李欧梵(리구범) 『上海摩登—一種都市文化在中国 一九三〇—一九四五(상해모던 일중도시

문화재 중국 1930-1945)』毛尖 (모침)역, 北京大学出版社, 2001年, 北京)이 출판된 후, 陳子善(진자선) 편 『夜上海 (밤과 바다)』 (經濟日報出版社, 2003年, 上海), 余之()『摩登上海 (모던 상해)』 (上海書店出版社, 2003年, 上海), 吳紅婧 (오홍정)『老上海摩登女性 (나이 든 상해모던 여성)』 (中国福利会出版社, 2004年, 上海) 라는 앤솔러지와 연구서 등이 간행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마천루가 우뚝 솟아 열강 제국의 조차지의 문화가 교차되는 상해의 광경에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피기풍속」에서 볼 수 있는 「야만」적인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해 「자기 식민지화」 「식민지 근대」 「반식민지성」이란 용어 의미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井上薫 (이노우에 카오루) 「『上海漫画』にいる自己植民地化と『他者』——「世界人体之比較」を中心に (상해만화에서 볼 수 있는 자기 식민지화와 『타자』—세계의 인체 비교)」 『現代中国 (현대중국)』 76호, 2002년의 『東アジアにおける植民地的近代とモダンガール (동아시아의 식민지적인 근대와 모던걸)』에 수록된 坂元ひろ子 (사카모토 히로코) 「漫画表象に見る上海モダンガール (만화표상에서 보는 상해 모던걸)」, William Schaefer. "Shanghai Savage." *Positions*, 11:1, spring2003, Duke University Press.) 각각 상해의 출판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야만」의 표상을 상해의 자기 표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梅原北明 (우메하라 호쿠메이)도 『文芸市場 (문예시장)』 (1925~1927年)의 편집에 관계하고 있던 당시부터 상해에 체재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세운 「그로테스크」노선의 근원이 상해의 자기 표상으로서의 「야만」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양의 시점으로 형성된 상해의 이그조티시즘이 일본에 수용될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새로운 의문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 변용이 중국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고, 일본 신감각과 문학에 있어서는 李征(이중)『表象としての上海(표상으로서의 상해)』 (東洋書林, 2001年)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고, 상해의 신감각과 일본의 신감각과 문학을 번역한 상황 또한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리고 잡지 『漫画生活 (만화생활)』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04年)에는坂元ひろ子 (사카모토 히로코)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岡本一平(오카모토 잇페이)의 문장이 3회 게재되어 있다 (「論漫画 (만화론)」 1号・1934年 9月, 「現代世界漫画界之鳥瞰(현대 세계 만화의 조감)」 2号・1934年 10月, 「西洋漫画史略 (서양 만화사략)」 4号・1934年 12月). 그 밖에도 新居格(니 이타루)의 문장 「上海第二印象(상해 제 2인상)」이 실려 있다(복간관에 수록,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04年). 이것은 「支那を斯く見たり(중국을 이렇게 보았다)」 (『改造 (개조)』 1934年 8月)의 제 2절 「上海を見直す (상해를 재인식 한다)」의 번역이다. 나아가 13호의 목차에는 柳瀬正夢 (야나세 마사무)가 그린 그림이 실려 있었다. 이러한 상호 관계성은 많은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상해에서의 일본인 문화활동 면에서 현지에 일본어 신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국내에서는 『上海日報 (상해 일보)』가 1934년 3월부터 1938년 12월,

『上海日日新聞 (상해 일일 신문)』이 1931년 1월부터 8월, 1933년 5월부터 1937년 4월까지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 점에 관해서 상해시 도서관 徐家匯 (서가회)별관에 있는 『上海図書館蔵 外文旧報紙 目録稿 (상해 도서관 소장 외문구보지 목록고)』 (1977년)에서 확인한 결과, 『上海日報 (상해 일보)』는 1929년 11월, 1932년 8월부터 11월까지, 『上海日日新聞 (상해일일신문)』은 1929년 11월, 1932년 8월부터 1934년 3월까지, 1935년 7월, 1937년 1월, 1937년 3월, 같은 해 5월~8월분을 소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上海每日新聞 (상해 매일 신문)』도 있는데, 1932년 8월부터 1934년 3월까지 분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上海每日新聞 (상해매일신문) (조간)』에는 森次勲 (모리즈구 이사오) 「芥川龍之介と上海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상해)」 (1932년 9월 17일), 森次勲 「中国のある風景 (散文詩) (중국의 어느 풍경) (산문시)」 (1932년 9월 20일), 群司次郎正 (군지 지로마사) 「アメリカを横切る (아메리카를 횡단하다)」 上・中・下 (1932년 9월 20일, 21일, 22일), 村山知義 (무라야마 토모요시) 「映画雑感 (영화잡감)」 (1932년 10월 19일), 伊藤永之介 (이토 에이노스케) 「文学の危機 (문학의 위기)」 A・B (1932년 10월 22일, 23일) 이라는 문예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연재소설도 석간의 일부밖에 확인 할 수 없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각각의 기사들을 순수 문학과 역사 소설의 두 종류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2년 8월 23일 ~ 1933년 11월 30일, 단, 1932년 10월분을 제외)

● 「순수문학」

○ 須藤一 (스도 이치) 「更正 (개정)」

(第 109 回, 瀧秋方 (다키 슈호) 그림) 1932년 8월 23일 ~
(제 220 회) 1933년 2월 8일

○ 高橋新一郎 (다카하시 신이치로) 「塑像の舞踊 (소상의 무용)」

(中座良隆 (주사 요시다카) 그림) 1933년 2월 9일 ~
(제 61 회, 휴재) 1933년 5월 6일 ~

○ 邦枝完二 (구니에다 칸지) 「青春は輝く (청춘은 빛난다)」

(友枝秀春 (토모에다 히데하루) 그림) 1933년 5월 8일 ~
(제 13 회, 이후 조간예) 1933년 5월 23일

○ 連載マンガ (연재 만화) 「ミス・シャンハイ (미스 샹하이)」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연재 소설 없음

○ 山本三八 (야마모토 미하치) 「世紀の戒律 (세기의 계율)」

(伊勢良夫 (이세 요시오) 그림) 1933년 6월 7일 ~
(제 125 회) 1933년 11월 7일

○ 貴司山治 (기시 야마지) 「迷路の裸女 (미로의 나체의 여자)」

(星野達三 (호시노 다츠조) 그림) 1933년 11월 10일 ~
(제 17 회, 이후 미확인) 1933년 11월 30일

● 「역사소설」

○ 橋爪彦士 (하시즈메 히코시) 「血吹雪 (피눈보라)」

(제 122 회, 竹内静古 (다케우치 세이코)) 1932 年 8 月 23 日~?

○ 直木三十五 (나오키 산쥬고) 「寛永乱れ (관영만의 혼란)」

(제 3 회, 삽화 기록 누락) 1932 年 11 月 1 日~

(제 294 회) 1933 年 11 月 3 日

○ 子爵 柳生俊久 (자작 야규 토시히사) 「柳生秘史 活人剣 (야규비사 활인검)」

(瀧秋方 (다키 슈호) 그림) 1933 年 11 月 5 日~

(제 22 회, 이후 미확인) 1933 年 11 月 30 日

이 밖에도 『上海日報 (상해 일보)』 (朝刊) 에서도 魔沙留 (마사루) 「ナンセンス 一千一夜 上海五人男 (넌센스 일천일야 상해오인남)」이라는 연재소설이 있었고 (第8回, 1932 年 9 月 2 日, 第9回, 9 月 6 日, 第10回, 1932 年 9 月 7 日), 상해의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주인공인 연재 소설인 奥田杏花 (오쿠다 교카) 「カフェーの娘 (카페 아가씨)」 (4 面, 1932 年 9 月 14 日부터 第 16 回, 1932 年 10 月 4 日까지) 와 浦汀漁郎 (우라테이 교로) 「コスモスの花菱 頃 (코스모스 꽃이 시들 무렵)」 (1932 年 10 月 7 日부터 第 19 回, 1932 年 10 月 30 日, 이후 미확인) 등도 있었다. 여기 소개하고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상당히 불안한데,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약이 따르고 자료 훼손에 따른 열람의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지변 후의 혼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러한 혼란한 상황도 감안해서 상해의 일본인과 「상해모던」과의 관계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존하고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등에 관한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6 서울의 「에로·그로·넌센스」

본고의 서두에서 예를 들었듯이 한국에서도 『에로·그로·넌센스』라는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이는 종래에 한국에서 「모더니즘」을 마르크스주의 또는 민족주의에 의한 저항 운동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비하여, 최근에 와서 보다 일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춰 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부분은 일본어로 번역 되어있는 김진송 저 『서울에 댄스홀을 허가하라 1930 년대 조선의 문화』 (川村湊 (가와무라 미나토)監訳, 法政大学出版局, 2005 年, 원저는 1999 年), 신명직 저 『환상과 절망 만문만화로 읽어가는 일본통치시대의 경성』 (岸井紀子 (기시이 노리코), 古田富建 (후루타 토미켄)訳, 東洋經濟新報社, 2005 年, 원저는 2003 年) 등이 있다.

특히 후자는 「읽어야 할 문헌자료」라는 란을 만들어 동시대 자료를 다수 제시하고 있어 매우 참고하기 좋다. 그 중에서도 「모더니즘」에 관한 용어가 눈에 띄게 된 것이 1930 年 전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잡지 『新民(신민)』의 赤羅山人 (세키라 산징) 「모던수제」 (59 号, 1930 年 7 月) 와 오석천 「모더니즘회론」 (67 号, 1931 年 6 月), 그리고 잡지 『別乾坤(별건곤)』의

임연생 「모더니즘」(1930년 1월호)이 그 예이다. 실제로 『新民(신민)』 목차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소개한 두 기사만이 「모던」 내지는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견출하는데 쓰여 졌다. 『別乾坤(별건곤)』의 경우는 옛세이란 「모던 복덕방」이 1930년과 연결되어 게재되었고, 같은 1930년 5월부터는 특집 「모던대학」이 실리게 되었고, 5월에는 Unfortunate professor 「超特モダン生活戦術(초특급 모던 생활전선)」, (어로변) 「新処女『無智隱蔽術』」(신여성 『무지은폐술』), 니콜라이·모던스키 「モダン孝行法講義(모던 효행법강의)」, 6월에는 모던·모세 「現代都會生活五戒命(현대도시 생활 오계명)」, 스크린·살지 「高級映画ファンになる十大秘訣(고급영화팬이 되는 십대 비결)」이 실려 있었다. 또 「ナンセンス特設館(넌센스 특설관)」(1930년 8월), (연조당인) 「ナンセンス人間(넌센스 인간)」(1930년 9월) 등의 기사도 볼 수 있다.

연구공간 <수유+노모> 근대 미디어 연구팀 편 『新女性メディアにみる近代女性風俗史(신여성 미디어로보는 근대 여성 풍속사)』(한겨레출판, 2006년, 서울)를 보면 그림 중에서 「モダン新語辞典(모던 신어사전)」(1931년 1월)에 「그로」, 「넌센스」 항목이 게재되어 있다.(p138) 잡지 『新女性(신여성)』은 1923년부터 1926년까지 간행된 후, 다시 간행된 것이 1931년이었기에 그 사이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남궁환 「モダン女學生風景(모던 여학생 풍경)」(1931년 4월), 윤지훈 「モダン女性十誠命(모던 여성십계명)」(1931년 4월), 「モダン語辞典(모던어 사전)」(1931년 6월), 김을한 「モダン結婚風景(모던 결혼 풍경)」(1931년 10월, 11월)이라는 제목들을 볼 수 있는 등 매우 흥미로운 잡지이다.

또 소래섭 『エロ・グロ・ナンセンス 近代的刺激の誕生(에로·그로·넌센스 근대적인 자극의 탄생)』(전계)에서는 잡지 『新女性(신여성)』에 있어서 「モダン語点考(모던 어점고)」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1년 11월에 창간된 이 잡지는 12월 이후 1933년 9월까지 단축해 새말사전을 게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1932년 2월 「에로」, 4월 「넌센스」, 9월 「모더니즘」 1933년 1월 「그로테스크」를 실고 있다. 「에로」 「그로」 「넌센스」의 세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エロ (Eroticism) : 영어.영어로 「에로티시즘」인데, 그것을 약하여 그냥 「에로」라고 부른다. 몹시 유행하는 말인데, 곧 「연애 분위기」 혹은 「색정 분위기」라는 뜻으로 일진하여 「음탕」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 「현대인은 에로를 좋아한다.」, 「요새 잡지들은 급속히 에로화한다.」 등으로 쓸 수 있다. 형용사는 「에로틱」이다. 그러므로 「B군은 그리 에로틱해서는 못썰.」하거나, 「그 영화는 너무 에로틱하다.」 등으로 쓸 수 있다.(p51)

○ グロテスク (Grotesque) : 영어. 기괴다는 뜻인데, 너무 에로틱하기 그 정도를 넘친 것도 그로테스크하다고들 쓴다. 예를 들면 식인종의 댄스 같은 것을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약하여 「그로」라고 쓰나니 「에로」와 「그로」가 늘 병행되는 것이 이십세기 울트라모던의 좋아하는 바이다.(p111)

○ ナンセンス (Nonsense) : 영어. 「무의미」란 뜻인데, 그냥 무의미가 아니라

영터리가 되어서 우습다는 뜻이다. 아무 뜻도 없는 웃음거리, 어처구니 없어서 우스운 것, 그럴 리가 없어서 우스운 것 등을 의미한다. 또 때로는 「소용없는 빈소리」란 뜻으로도 통용된다. 「그 활동 사진은 년센스야」 하고 쓸 수도 있고 「A군 결혼했다지?」 할 때 「오-년센스」 하고 대답할 수도 있다.(p26)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하는 일본의 특정 신어사전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도 설명했듯이 신어사전류를 참조한 것은 확실하다. 『新東亜(신동아)』에서는 이정섭 「난무한 에로의 파리」 (1932年 2月), 竜岳山人(용악산인) 「에로, 그로, 공포의 난무 국제 도시 상해」 (1932年 3月) 라는 기사가 있었고, 사전 속에 정의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쇼와모던」과 「상해모던」에 볼 수 있었던 「프리미티브로의 정열」이 서울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던 것인가? 소래섭 『エロ・グロ・ナンセンス(에로·그로·년센스)』에서는 「에로·그로」와 「년센스」를 분리하는 형태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본고의 고찰과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잡지 『신동아』에도 다양한 문학 관련기사, 예를 들면 안희남 「日本文壇新興芸術派考——プロ派、既成派との対立——(일본문단 신흥예술파고-프로파, 기성파와의 대립--)」 (1932年 12月), 안희남 「日本文壇新興芸術派の代表的理論(일본문예 신흥예술파의 대표적 이론)」 (1933年 1月), 송인정 「探偵小説小考(탐정소설소고)」 (1933年 4月), 김기림 「現代詩評論(二)(현대시평론 2) 「ポエジー(포에지)」와 「モダニティ(모더니티)」」 (1933年 7月)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외 잡지기사 등 참조하여 검증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쇼와모던」과 「아시아」라는 도식을 세워 놓아 버리면,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만을 비교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 더 넓은 범위로 고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광호 편 『韓國の近現代文学(한국의 근현대문학)』(윤상인, 渡辺直紀(와타나베 나오키)역, 法政大学出版局, 2001年)에 실려 있는 김윤식의 논문 「韓國文学の二つの指向性の弁証法(한국문학의 두개의 지향성의 변증법)」(초출은 『月刊文学(월간문학)』 1974年 2月)에 「1920년대 한국에서 『モダン(모던)』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p27)고 기술하고 있다. 충분한 용례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최정희 「尼奈の三幕の記録(니나의 삼막의 기록)」(『新女性』 1931年 12月)에는 「모던(모던)」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다.(p101) 이것은 岸田劉生(기시다 류세)가 1927년에 「毛断嬢(모던걸)」이라 이름 붙인 것이 그 계기라 할 수 있는데, 陳芳明(진방명) 『植民地摩登 現代性と台湾史觀(식민지 마등 현대성과 타이완 사관)』(麦田出版, 2004年, 台北)에 따르면, 1930년대 「毛断(모던)」이라는 말이 타이완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는 한다(p13). 그렇다면 한국과 타이완의 「모던」에 대해서도 비교하게 되는 시야가 열리게 된다. 또 상해 모던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되고 있는 「摩登」과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문화 번역의 복잡하게 얽힌 연결망을 검증해 가는 것은 <일본인>이라는 내셔널·아이덴티티 그 자체를 재인식 해야하는 필요성에 이어진다. 당시의 <일본인>이라는 틀에는 현재의 한국·북한 및 타이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때

일컬어지는 내셔널·아이덴티티는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정치적인 갈등과 조정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면 「모던」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화적 越境(월경)을 경유해 왔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1930년대 중간부터 현저히 나타나는 「일본 회귀」의 논의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遠藤不比人 (엔도 후히토) 공저 『転回するモダン——イギリス戦間期の文化と文学 (전회하는 모던-영국전쟁기의 문화와 문학)』 (研究社, 2008年)에서 들고 있는 「『잉글랜드』 내지 『잉글리쉬네스』라는 표상으로서의 고착이 지배적, 증후적인 『30년대』의 이데올로기적인 오브젝션 -- 『확대하는 제국』에서 자국문화로 퇴행하는 경향」 즉 「인류학적 전회」가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것일까? (「はじめに(서론)」 vii頁。또한 「인류학적 전회」는 이하를 참조. Jed Esty, *A Shrinking Island: Modernism and National Culture in Engla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각각의 과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다시 「모더니즘」 연구에서 횡단적인 동향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서는 앞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인식을 더욱 높여 줄 것이다.

* 본고는 과학연구비보조금 「昭和モダンの生成にみる文化翻訳のポリティクス (쇼와모던의 생성에 볼수있는 문화번역의 폴리틱스)」 (若手研究 B、平成 19~20 年度、課題番号 19720078) 에 따른 연구 결과의 일부분임.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院准教授, 큐슈대학대학원비교사회문화연구원준교수)

번역 : 장운향 (큐슈대학대학원박사과정)